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인 : 손달의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하나님의 교훈과 인간의 교훈

(요 7:14-18)

이종윤 원로목사



18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언어권을 통틀어서 예수님에 관한 책은 대개 600여 권 정도 됩니다. 그 책들은 크게 두 가지로 대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전반부에 예수님의 인격을 기록하고 후반부에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으로 기록한 책, 또 하나는 전반부에 예수님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 예수님의 인격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훈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1.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요 7:16)

본문 14절을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명절은 일주일이나 명절의 중간이라면 나흘째 되는 날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찾으며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어 저들에게 교훈을 주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놀라게 여겼습니다(15절). 그리고 “예수는 배우지도 아니한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아는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16절)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인간의 교훈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첫째로, 신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창조 주요 역사의 섭리 주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창세전에 계시고 역사를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 편에서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성경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인데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의 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셋째로, 인간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실 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의

인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을 두고 초등학교문이라고 했습니다.

2. 인간적 교훈과 신적 교훈의 구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7:17)

우리는 인간적인 교훈과 신적인 교훈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교훈을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적 교훈은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만드시는 창조자의 힘이 있고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있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경도 누구의 강요로 읽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읽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마음과 기도의 내용입니다.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모든 대인관계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소망 중에 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새사람입니다.

(2) 신적 교훈은 복종하려는 의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의지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됩니다. 우리는 고집도 버리고 편견도 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8월 정기당회 개최하다 손달익 담임목사 주관



지난 8월 8일(주일) 가이오실에서 8월 정기당회가 손달익 담임목사의 주관으로 열렸다.

8월 정기당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2021 사명자대회 시행을 결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2. 목사고시에 합격한 안용곤 전도사를 목사

안수 후 부목사로 청빙하기로 하다.

3.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적극 협력하는 마음으로 2021 바자 행사를 추후 가능한 시기까지 연기하기로 결의하였다.

4. 손달익 담임목사를 서울교회 산하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신임 이사로 선임하였다.

장로선거 관련 일정 및 부목사 청빙 제직회 안내

당회는 본래 노회에서 허락받은 장로 10명에 대하여 이번 8월 중에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택한 후 헌법상 정해진 4개월의 훈련기간을 거쳐 올해 말 늦게라도 임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계속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8월 22일(주일)까지 연장되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 예정대로 8월 중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전국민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증가되는 오는 10월경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방역 단계도 완화될 것을 기대하여 그 이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타노회에서 시무하다가 서울교회에 부임함으로써 서울강남노회 이명 절차가 필요한 조동수 목사와 이번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가을노회에서 목사 안수가 필요한 안용곤 전도사에 대하여는 가을노회 개회 전 관련 청원서류 접수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오늘 오후 찬양예배 시 제직회만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당회는 이들 두 분에 대하여 부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나 위임목사만이 부목사 청빙을 할 수 있어 우선 이들을 교육목사로 청빙한 후 향후 손달익 담임목사가 정식 위임목사로 청빙 된 후 부목사로 청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021년 사명자대회

(2021 사명자대회 조직)

서울교회 설립 당시 7주간의 특별기도로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했으며 해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앞두고 50일간 사명자대회를 실시하여 왔다.

특히 올해는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의 원년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 각자가 맞은 가정, 교회, 사회, 국가에 맡은 바 사명자로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쓴다.

- 일시 : 2021. 10. 10(주)-11. 28(주) 50일간
- 특별새벽기도회 : 11. 22(월)-11. 27(토)
새벽 5:00-6:00
- 강사 : 손달익 목사
- 주제 : "서울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
- 성구 :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아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가 2:10)
- 주제찬송: 93장

- 지도 : 서명철 목사
- 부장 : 오치열 장로
- 차장 : 박광식 집사
- 기획분과 : 김광태 집사 / 이겸손 집사
- 진행분과 : 이원석2 집사 / 김영희 집사
- 기도분과 : 한대석 집사 / 조서현 집사
임승한 집사
- 교육분과 : 장윤기 집사
/ 김혜언 집사 임대중 집사
이성우 집사 정완진 집사
정현구 집사
- 홍보분과 : 김규태 집사 / 유은경 집사 순례자
- 재정분과 : 최원석 집사
- 안내분과 : 예완식 집사 / 안내위원
- 동원분과 : 김승록 집사 / 교구장 교구간사
- 봉사분과 : 박현영 권사
/ 전도회 임원 김선영 권사 권사회
- 차량분과 : 김광래 집사
/ 김광래 집사 스테반회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반주자 모집

고등부는 반주자를 모집한다.

고등부 예배시간은 주일 오전 9시-10시 20분이며 피아노전공자로 예배 반주와 대면 예배 시 고등부 찬양대 연습을 담당하게 된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초등부 교사모집

초등부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기대하시는 성도들의 많은 지원 및 권고 바란다.

- 이대원 전도사(초등부 교역자)
010-4454-0391
- 김혜언 집사(초등부 부장)
010-3923-9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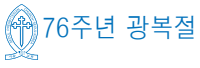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황수지(육사생도)
김은호 유성혁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옥준용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자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이다. 오늘을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 나라에는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과 일본 강점기의 탄압에 앞장서서 저항하는 순교자가 있었다. 그 가운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순교한 양용근 목사가 있다.



순교자 고 양용근 목사
1905 - 1943
장로교 목사, 순교자, 교육자
(사진 출처 : 한국기독교순교자 기념사업회)

매산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양용근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만 끄찍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1923년 일본은 동경과 요코하마에 걸쳐 대지진이 일어났다. 이 큰 지진(관동대지진)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자 일본 위정자들은 이것은 한국인들의 대폭동으로 인한 방화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당시 일본에 있는 6천여 명의 재일 한국인을 무차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양용근은 하나님께 남은 생을 바치기로 하고 일생을 목회에 투신하였다.

귀국한 그는 가산을 있는 대로 정리하여 고향 마을에 배울 수도 없고 배우지 못한 가난과 불운에 빠져 있는 후진을 양성하기 위하여 『오사학원』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한국사와 성경을 가르쳤다. 그 후 1939년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며 병들고 소외된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애양원교회에서 성역을 감당하였다.

일본은 강점기 말에 접어들면서 더욱 민족 교회들을 들볶고 못살게 굴었다. 그중 제일 못할 일은 제1, 2, 3계명을 모두 범할 이른바 신사참배 강요였다. 민족교회가 일본의 잔인한



고 양용근 목사 추모비
(광양기독교100주년기념관 소재)

박해를 받아온 역사는 일본의 이 신사참배 강요에서 그 절정에 달하였다. 신사참배는 장로교회에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철저했다. 1931년 9월 경남노회에서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이 통과되고 이를 부산일보가 보도하여 큰 화제가 되었다.

1936년 초에 장로교 선교사들은 '선교실행 위원회'를 소집하여 기독교 학교의 폐쇄 반대

를 원칙으로 삼고 신사참배 절대 반대 운동을 펴다가 1938년에야 평양 내외 학교와 연희전문과 세브란스 의전 및 정신학교들이 자진 폐교하면서 결사반대의 뜻을 펼쳤다.

이같이 일본강점기 때 기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 사랑은 민족 사랑으로 이어져 뜨거운 신앙심과 민족의식으로 언제나 백성들의 모범을 보였다. 양용근 목사 역시 신사참배를 반대한 불경죄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1943년 12월 5일 광주형무소에서 죽음을 맞았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조선은 그때 하나였다. 민족도 하나, 마음도 하나였다. 그러나 자유가 오자 그 가운데 이념과 이권이 개입되면서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고 저들의 유익을 따라 이 나라가 분단되고 오늘에 이르렀다. 누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누가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누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가!

이 땅에 희망은 교회뿐이다. 교회가 아무리 망가졌다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할 길은 교회뿐이다. 오늘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제2, 제3의 양용근 목사가 되어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된 신앙인으로 민족과 국가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자.

정리 : 허숙 권사 (편집부)

교회설립 30주년 기념 순례자 추회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

순례자는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전교인을 대상으로 "내 사랑 서울교회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 대상 : 서울교회 모든 성도
- 기간 : 1월 10일(주)-10월 31일(주)
- 마감 및 심사 : 10월 31일(주)
- 결과 발표 : 11월 7일(주)
순례자를 통해
- 전시 : 11월 7일(주)-12월 26일(주)
- 시상 : 대상 1명
사랑상·소망상·민음상 각 1명
장려상 (참여 인원수에 맞게 변동)
- 응모 내용
① 서울교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교회 새벽 풍경, 야경 등 다양한 교회 사진
②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서울교회입

니다. 교회 내·외 행사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 혹은 비대면 예배로 인해 인터넷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모습 등

- 응모 방법 :
① 흑백, 컬러 모두 가능
② 3000x2000 픽셀 이상의 jpg파일
③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④ 카톡으로 전송 시 사진 화질 선정을 반드시 원본이나 고화질로 전송
⑤ 사진에 날짜 표기가 없어야 함
⑥ 제출 시 반드시 사진 제목과 참가자 이름, 직분 표기
- 제출된 사진들은 교회 행사나 순례자 편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제출 :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분쟁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서울교회! 수기 및 간증 공모 10월 31일(주)까지 수시 접수

- 목적
교회 분쟁 시 성도들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나 감동적인 사연을 글 또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함
- 일정 : 2021.6.1 - 2021.10.31
- 진행 방법
- 수기형: 손글씨로 써서 사무국에 비치된 수기 공모함에 제출
- 동영상: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USB 저장매체로 제출
- 온라인: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 평가 방법
- 당회, 스테반회, 권사회의 각 2명과 분쟁백서 담당자 심사위원
- 교회 분쟁에 대한 개별적 경험과 신앙적 감동이 사실적 표현으로 작성된 수기 또는 동영상



장윤기 집사
(유년부 부장)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으로나 교회적으로 큰 위
기인 이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올해 유년부 여름성경학
교를 개최합니다.

를 개최합니다.

“예수, My Wonderful Lord” 라는 주제를 가
지고 다음 3가지 목표로 준비하였습니다.

- 1) 유년부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
이요, 구세주 이심을 알게 한다.
- 2) 배우는 지식이 아닌 스스로 깨달아 알아 가
는 성경학습이 되도록 한다.
- 3) 가정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
모-자녀가 함께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어린이들이 기대하는 아가페타운에서의
성경학교를 올해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
깝게 생각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경학
교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것이라 믿으며,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넘치는 은혜의 기
쁨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
이며, 유년부 모든 어린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지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
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준비한
여름성경학교에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
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귀한 자녀를
성경학교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 주제 : 예수, My Wonderful Lord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
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 장소 : 서울교회 701호(온라인 방송센터)
및 각 가정(ZOOM으로 참여)
- 일시 :
8월 21일(토) 09:00-12:00 / 비대면
8월 22일(주일) 10:30-13:30 / 비대면
8월 29일(주일) 11:20-12:40 / 비대면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8월16일	월	렘 39-42		왕상 1-4	
8월17일	화	렘 43-47		왕상 5-9	
8월18일	수	렘 48-49		왕상 10-14	
8월19일	목	렘 50-51		왕상 15-20	
8월20일	금	렘 52, 애 1-2		왕상 21-22, 왕하 1-4	
8월21일	토	애 3-5		왕하 5-9	
8월22일	주일	겔 1-4		왕하 10-16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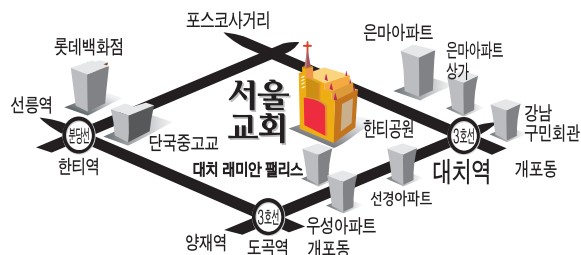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손달익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2.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어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3. 코로나 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나라가 법과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
어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